

힘든 하루를 보낸 아이에게 읽어 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힘든 하루를 보낸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며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위로의 그림책입니다. 슬픔, 무서움, 걱정, 실패 등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을 시적이고 다정한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부모가 아이를 꼭 안고 읽어줌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돕는 '마음 처방전' 역할을 합니다. 아이의 아픈 감정을 어른과 다르지 않은 무게로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을 등대와 같은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내일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소중한 보물상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본 정보



스콧 스투어트 글, 그림
14,000원, 32쪽
2026년 02월 10일



국내도서 > 유아 > 유아 그림책
국내도서 > 어린이 > 1-2학년
그림/동화책



#잠자리그림책 #위로그림책
#마음치유 #자존감그림책
#이입숙소장추천 #공감과 위로



1-2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1-2 국어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선생님 도움말

아이의 아픈 감정은 어른의 것만큼이나 무거우며, 작은 상처가 쌓여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아이를 꼭 안고 이 책을 읽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단단한 마음의 다리가 놓입니다. 시와 노래처럼 다정한 문장들은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어 하루 동안 지친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는 따뜻한 처방전이 됩니다. 이 책은 부모에게는 아이에게 건넬 위로의 말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아이에게는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든든한 보물상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두워진 아이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목표 책의 내용을 예측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해 보세요.

- * 제목 '오늘 하루는 어땠니?'라는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드나요?
- * 토끼처럼 엄마나 아빠가 꼭 안아 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 *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이었나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날씨(해, 비, 천둥, 구름 등)로 그려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목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 * 이 책에서는 슬픔, 무서움, 걱정 같은 힘든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 *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져서 상자 속에 숨고 싶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작가가 강조하는 '진짜 나다운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 *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변하고 바람이 불어도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대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따뜻하게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목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른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니 다 잘 될 거야.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니 다 잘될 거야.'처럼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힘들었던 친구에게 딱 한 문장만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떤 따뜻한 말을 해 주고 싶나요?



마음의 색깔을 섞어 봐요~

슬픔, 무서움, 걱정 등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만약 슬픔과 용기가 만나 새로운 색깔이 된다면 어떤 색이 될까요? 그 색깔의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기분이 느껴질지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